

“코미디가 제일 어려워요…대사 아닌 실제 대화처럼 연기했죠”



배우 안재홍
뉴(NEW) 제공

6수생 정봉(‘응답하라 1988’)부터 일본 만화 광팬 오남(‘마스크걸’), 글로벌 아이돌을 꿈꾸는 백남(‘닭강정’), 그리고 불륜 남녀를 뒤쫓는 사무엘(‘LTNS’)까지.

최근 몇 년간 안방극장에서 안재홍보다 시청자에게 웃음을 준 배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의 젊은 남자 배우라면 손을 내저을 법한 파격적인 역할을 잇달아 맡으면서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안재홍의 은퇴작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지난 30일 개봉한 강형철 감독의 코믹 히어로물 ‘하이파이브’에서도 안재홍은 관객 웃음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몸을 아끼지 않는 슬랩스틱과 특유의 짜질하고 능청스러운 말투로 톡톡 내뱉는 대사에 폭소를 참기 힘들다.

“많은 배우가 코미디 연기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다 같은 코미디물로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면 작품마다 결이 다르거든요. ‘하이파이브’의 경우 워낙 시나리오 자체가 재미있어서 대사인 게 표나지 않도록, 실제 대화인 것처럼 맛있게 연기하려고 했어요.”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안재홍은 이번 작품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영화가 만화 같은 매력이 있어서 연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해야 관객이 더 재미를 느낄 거라 생각했다”며 “에드립(배우가 즉흥적으로 만드는 대사)도 거의 하지 않고 시나리오대로만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하이파이브’ 속 안재홍

뉴(NEW) 제공

영화 ‘하이파이브’ 배우 안재홍

강풍 일으키는 초능력자 연기
“불품 없어서 웃음 주는 캐릭터”
시나리오 보기 전에 출연 수락
“배우들 앙상블, 기대 뛰어넘어”

안재홍이 맡은 역할은 정체불명의 남자에게서 폐를 이식받고 엄청난 폐활량을 지니게 된 작가 박지성이다. 같은 공여자에게서 장기를 받은 뒤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얻은 완서(이재인 분), 자유롭게 전자기파를 조종하는 기동(유아인), 상처를 치유하는 약선(김희원), 타인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영춘(신구·박진영) 등에 비하면 다소 하찮아 보이는 초능력이다. 안재홍은 “등장인물 중 가장 불품없는 능력”이라면서도 그 덕에 웃음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성은 커피를 한 번에 빨아먹거나 치킨을 발라 먹는 데 초능력을 쓴다. 그러다 다른 초능력

자들 하나들 만나면서 소소하게 이웃을 돕기 시작한다. 원래는 사회성이 결여된 인물이지만 이들과 친구가 된 후 함께 힘을 합쳐 빌런(악당)인 영춘에 맞서기도 한다.

“지성의 능력이야말로 이 작품의 대표적인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강풍을 일으키고, 완서를 공중에 띄워서 싸움을 돕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메시지 같아요. 아무리 하찮은 능력이라도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 감독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뒤 가장 먼저 안재홍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두 사람은 실제로도 절친한 사이로, 강 감독은 ‘하이파이브’를 구상할 때부터 영화에 대해 귀띔했다.

안재홍은 시나리오를 펼쳐 보기도 전에 지성역을 수락했다. 강 감독이 이 역할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한 그는 미리 단발로 머리를 기르기까지 했다.

웃음의 비중이 안재홍에게 쏠려 있어 자칫 ‘원톱’ 영화로 비칠 수 있지만, 다양한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안재홍은 강조했다. 그는 “스크린에 비칠 때마다 기대하게 되는 배우들이 계속 나온다”며 “그런데 그 기대치를 항상 뛰어넘는 연기를 선보여서 놀라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안재홍은 유아인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시사화 때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발을 구르는 소리도 들렸다”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웃었다.

박보검 ‘굿보이’ 4.8% 출발

배우 박보검이 주먹을 휘두르며 맨몸으로 구르는 액션을 선보인 새 드라마 ‘굿보이’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 방영된 JTBC 새 토일드라마 ‘굿보이’ 첫 화 시청률이 4.8%(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1화에서는 한때 메달을 땀던 국가대표였다가 지금은 경찰이 된 윤동주(박보검 분), 지한나(김소현), 김종현(이상이), 고만식(허성태), 신재홍(태원석)의 고군분투가 담겼다. 과거 영광의 무대에 섰던 왕년 국가대표들이 그때의 실력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상대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시원시원한 액션 연출로 보여줬다.

극 중 윤동주는 땀방에서 잠복근무하다가 땀에 젖어 늘어지고, 땀소니를 당해 진흙탕에 뒹굴며, 얼굴에 멍과 딱지가 지워질 날이 없다.

그간 박보검이 보여준 수줍으면서도 단단한 내면을 가진 캐릭터와 달리 싸움을 즐기는 저돌적인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세븐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세븐틴, 티켓 매출 3위 달성 6개월간 84만명 ‘1670억원’

그룹 세븐틴이 최근 6개월간 월드투어로 1,600억원이 넘는 티켓 매출을 올려 미국 빌보드가 집계한 티켓 매출액 순위 3위를 기록했다.

빌보드가 최근 발표한 박스스코어 연간 반기(2024년 10월 1일~2025년 3월 31일) 보고서에 따르면 세븐틴은 총 30회 공연으로 관객 84만2,000여명을 동원해 약 1억2,090만달러(한화 약 1,670억원)를 벌어들였다.

같은 기간 1위를 차지한 콜드플레이는 1억4,210만달러(약 1,962억원)를, 2위 사키라는 1억3,000만달러(약 1,795억원)의 티켓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6,750만달러(약 932억원)의 티켓 매출액으로 전체 16위에 올랐던 세븐틴은 올해 두 배 가까이 매출액을 끌어올리며 상위권에 자리했다.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지면 사정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10 TV쇼 진품명품(재)	5: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30 여왕의 집(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2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00 나를 살리는 1교시(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친절한 선주씨(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좋아 11:15 키즈 팟 오감(재) 11:45 주니토니 이야기(재)	5:00 US 여자오픈 골프 FR 6:50 ↔모닝와이드 1부 7:25 ↔모닝와이드 2부 7:00 SBS 뉴스 7:10 US 여자오픈 골프 FR 8:00 모닝와이드 2부 8:40 맨인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애니갤러리 11:00 보석이네 건강수다	5: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15 모두 함께 부스누! 8:00 똥동똥 똥동똥 8:50 영유아 클래스 e 9:20 자이언트 팽TV(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KBS 뉴스 12 1:00 문화스케치 2:00 KBS 뉴스 2:10 다큐 인사이드(재) 3:10 이웃집 찰스(재)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 5 5:30 동물의 왕국(재)	12:40 영화가 좋다(재)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0 KBS 뉴스타임 3:15 월드 24 3:45 쫓!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4:00 TV 유치원(재) 4:30 세상의 모든 다큐 5:2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1:55 2시 뉴스 외전 3:55 기분 좋은 날(재) 4:55 5시 뉴스와 경제 5:10 폭 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45 슈퍼트론 2 1:00 생활의 달인(재) 2:00 뉴스브리핑 4:00 좋은 아침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열린 TV 시청자 세상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00 EBS 평생학교 2:30 클래스 e 3:55 불룩스 4:10 똥동똥 똥동똥 5:00 페파 피그 5: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 7 7:40 우리말 겨루기 8:30 대운을 잡아라 9:00 KBS 뉴스 9 10:00 가요무대 10:55 KBS 뉴스라인W 11:35 우리 집 금송아지(재)	6:00 경제콘서트 6:35 2TV 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8: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9:50 공부와 놀부 11:20 아이 러브 스포츠 11:45 스모킹 건(재)	6:05 오늘N 7:05 친절한 선주씨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제21대 대선 방송연설-민주 9:10 폭 쉬면 다행이야 10:55 오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생활의 달인 10: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50 나이트 라인	6:10 EBS 뉴스 6: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7:20 고향민국 8:40 세계테마기행 9:35 한국기행 9:55 PD로그 10:45 EBS 자연 다큐 결작선 11:40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6월 2일 (음력 5월 7일)

 子	48년생 쓸데없이 나서지 않도록 60년생 하고픈 대로 해도 좋을 듯 72년생 바꾸지 말고 하던 것에 집중 84년생 대인관계가 유리한 날	 卯	51년생 부담감이 크면 그만두는 것으로 63년생 사람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 75년생 인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87년생 완벽하면 친구는 없다	 午	42년생 고정관념 버려야 54년생 버는 일을수록 고개 속이는 법 66년생 우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78년생 자신감이 넘치면 자만으로	 酉	45년생 마음이 왔다 갔다 57년생 가족은 내 편 69년생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넘기도록 81년생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인 것
 丑	49년생 시작이 반이다 61년생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73년생 사적인 감정 들이지 않도록 85년생 열정과 패기가 넘치니 능력 발휘	 辰	52년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64년생 억지로 하는 되지 않으니 76년생 시작이 반이다 88년생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 적당하게	 未	43년생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해야 할 듯 55년생 가끔은 이기적인 생각도 필요 67년생 인맥 관계는 내가 하기 나름 79년생 불투명하면 나서지 마라	 戌	46년생 관한 투정은 외로움 58년생 잡생각은 움직여야 없어지고 70년생 예민함으로 피곤한 하루 82년생 결정은 오늘보다 다음 기회에
 寅	50년생 내 건강은 내가 지키도록 62년생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74년생 욕심부려도 좋은 결과 나온다 86년생 의외로 쉽게 풀리고	 巳	41년생 현실에 만족을 53년생 과정은 힘들지만 보람찬 하루 65년생 고진감래 77년생 해야 할 일은 끝내놓고서 마음껏 휴식하라	 申	44년생 세상에 쉬운 것이 없으니 56년생 의견 충돌 피하기 68년생 통장 안에 금전은 채워지고 80년생 잘해도 칭찬은 없으니 서운함	 亥	47년생 끈대 소리 듣지 않게 처신 잘하도록 59년생 오늘은 내가 주인공 71년생 논리적이되지 않게 83년생 일방적인 것보다 의논으로